

사슴 農場의 經營

編輯室

1. 사슴사육의 목적

사슴사육의 목적은 녹용과 녹혈을 얻기 위한 사육과 별장이나 관광지의 관상용, 동물원의 전시용 등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주로 약재를 얻기 위한 사육과 번식에 커다란 목적을 두고 있다.

(1) 녹용(鹿茸)의 생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여 왔으며, 뿔이 자라기 시작하여 45일쯤 되어 모양이 말안장과 같이 2가지를 뿔고 3가지가 나오기 전에 채취한 것으로 질이 어리지도 않고 또한 늙지도 않은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용할 때는 벨벳 모양의 털을 긁어 버리고 얇게 썰어서 수(醃:우유나 양젖) 또는 술(酒)을 발라 붙에 쪄어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래식방법으로 대만산 꽃사슴, 만주사슴 등을 소규모로 사육하여 왔으나 지금은 외국의 대형사슴도 수입하여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녹혈(鹿血)의 생산

녹혈이라 함은 녹각이 탈락한 후 새로운 뿔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50~60일 사이에 뿔을 절각(切角)하였을 때 절각된 두부(頭部)의 면에서 흘러 나오는 피를 말하며 피가 응고하기 전에 복용하는 방법과, 응고시

켜서 바람에 건조하여 덩어리 모양을 이룬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동물로서 사슴을 많이 사육하고 있으나 여기서 얻어지는 녹혈의 소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녹혈의 이용 및 복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으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이 녹혈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온 결과라 생각할 때 녹혈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사슴고기(鹿肉)의 생산

외국에서는 사슴사육의 제1 목적으로 사슴고기의 생산을 위해 사슴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품종개량과 영양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사슴(Elk, Wapiti)과 대룩사슴(Red deer) 같은 중형사슴과의 잡종(雜種)을 만들어 번식을 늘린다면 앞으로는 우리도 사슴고기의 생산을 위해 농장을 경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다.

(4) 동물원의 전시용

동물원에서는 교육전시용으로 여러 종류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다. 잡종번식을 지향하고 멸종의 위기에 처해진 사슴의 보존을 위한 의무감과 사슴의 양(量)적인 전시보다 질

(質)적인 전시에 주력하고 있다.

2. 사슴농장의 선정 및 설치

사슴농장은 다수(多數)를 사육하는 경우와 소수(小數)를 사육하는데 따라 그 규모와 위치 선정이 틀려진다.

(1)장 소

① 대규모 사슴농장(100 마리 이상)

야산(野山)의 유희지(遊休地)를 자연상태로 이용한다.

야산의 경사도(傾斜度)와 계곡을 이용한 급수로(給水路), 그리고 풀이 그대로 자랄 수 있는 목초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2~3 에이커의 땅이 필요하게 된다.

사육장이 될 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이 좋으며, 너무 가파른 곳은 좋지 못하다. 경사진 위쪽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평편한 것이 좋고 아래쪽에도 평편한 곳이 있어야 한다. 사육장내가 약간의 경사가 있으면 배수가 잘되며 오물도 잘 씻겨져 내려 가므로 여러 면에서 좋다. 아주 가파른 경사지에서는 사슴이 활발히 운동을 하지 않지만 완만한 곳에서는 활동량도 많다.

지면의 토양은 너무 돌이 많거나, 황토 흙만으로 덮혀 있어도 좋지 않다. 하지만 토질에 관계없이 배수가 잘 되고 개울물이 흐르는 곳이 이상적이다.

② 소규모 사슴농장(50 마리 이하)

대규모 사슴농장과는 달리 자연을 이용한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대부분 설치하므로 양지바른 곳을 택하여 사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햇볕이 많이 쬐는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수 있는 나무나 그늘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무는 사슴이 뿔로 상하게 하거나 이빨로 갇아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나무주위를 철망으로 감아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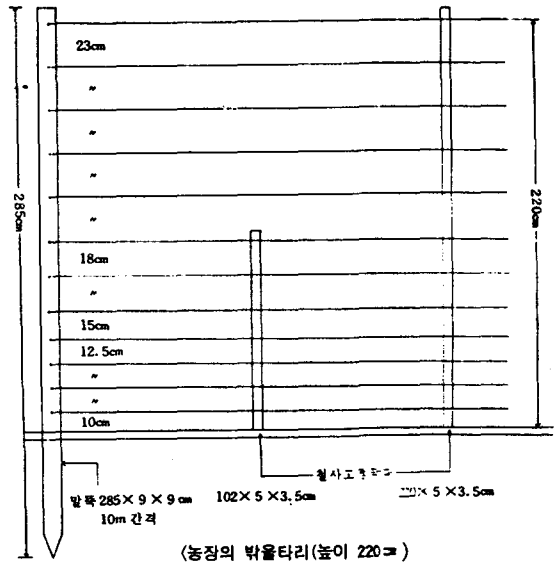
1천평미만의 땅에 50 마리 이하의 사슴을 기르는 경우이다.

(2)시 설

① 울타리(鹿柵 : F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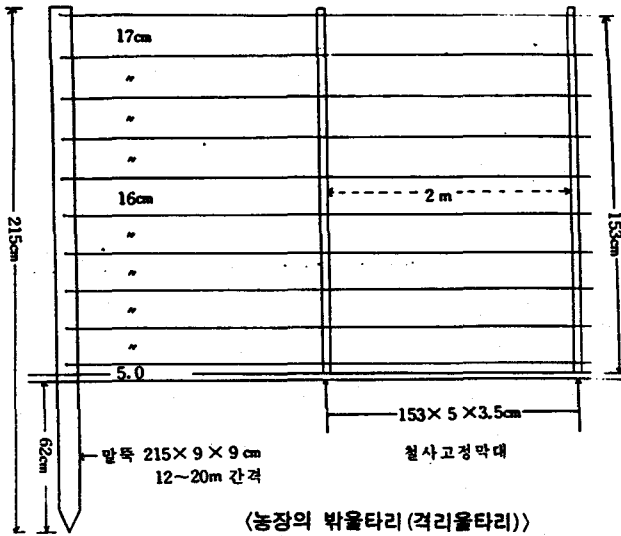
울타리의 규모는 녹사(鹿舍)의 크기와 사육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광대한 면적에는 울타리만 설치하고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 울타리를 설치해 암놈과 수놈 그리고 어린 새끼들을 분리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농장의 이상적인 울타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철사는 12 번선의 굵기를 사용하여 팽팽히 설치한다. 철망의 높이는 220 cm, 말뚝은 10 m 간격으로 땅에 박아 설치하고, 그 중간에 짧은 막대와 긴 막대를 번갈아 설치하여 철사가 늘어지지 않게 한다. 이러한 형태는 대개 농장의 밖울타리에 사용된다.

다음 그림은 농장안의 격리용 울타리로서 밖울타리보다는 낮게 설치하고 말뚝 사이의 막대는 같은 높이의 것을 사용한다.



② 사육장의 내부

목장별 주요시설의 규모와 설치내용

목장 번호	사육장 방향	두당사육장이 넓 (평, cm^2)	철책이 높이 (m)	철선기 (둘레 cm , 번수)	포획장 폭 (cm)	포획장이 길 (m)	수원 (水源)
1	남	56 (184.8)	2.0	1.0(10)	60	3	자연수
2	북 동	10 (33.0)	2.5	1.0(10)	60	4	"
3	북	63 (207.9)	2.0	1.2(9)	60	9	"
4	북	10 (33.0)	1.7	1.4(7)	75	10	"
5	남 동	120 (396.0)	2.2	1.0(10)	50	12	"
평균		51.8 (107.9)	2.1	1.1(9)	61	7.6	

사슴 사육장의 출입구는 사육 두수에 따라 다르나 1~2m의 너이로 문의 크기가 다양하며, 그 형태는 개폐식(開閉式)이 대부분이다. 출입문은 반드시 철망끝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이중문으로 하고 밖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 가도록 설치하며, 모든 사육장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을 설치해 놓는 것이 좋다.

소규모 농장은 사육장이 작아서 사슴이 탈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철사는 8번선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농장보다 짜임새가 있고 견고하게 한다. 120cm의 높이까지는 능형(다이아몬드식) 철망을 하여 사슴의 팔로 인한 철망의 파손을 막고 다른 동물의 침입도 막는다.

보통 외부울타리는 2~2.2m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나, 3m로 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으로는 쇠파이프가 사슴장 밖으로 나오도록 철망을 사슴장 안쪽으로 쳐야만 사슴이 다칠 염려가 없다.

사슴은 철망 주위를 따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울타리 내부에 돌출부위가 있으면 외상을 받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육장내의 시설 및 기구는 나무로 만든 사료통(풀을 넣는 풀시렁 포함), 급수통(자연수가 없을 때), 포획망, 운반상자, 사료운반통, 사료배합통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시설로는 건조창고, 절각장, 비나 바람막이의 의지칸, 격리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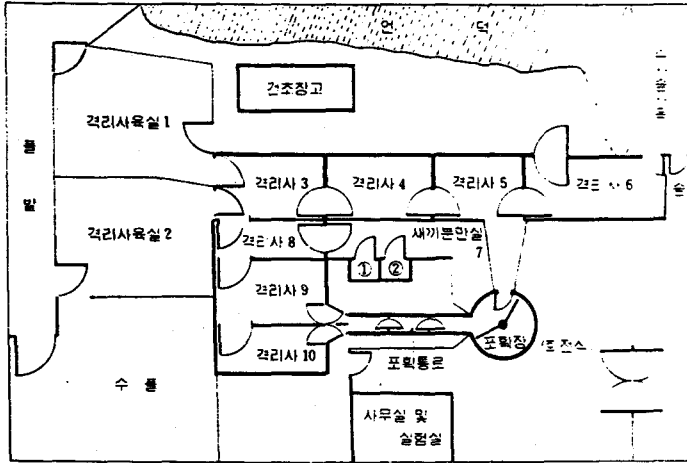
사료통은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3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

는 것이 좋고, 청초나 건초꽃이용 풀시렁은 밑에서 빼먹을 수 있도록 60 cm 정도의 높이에 부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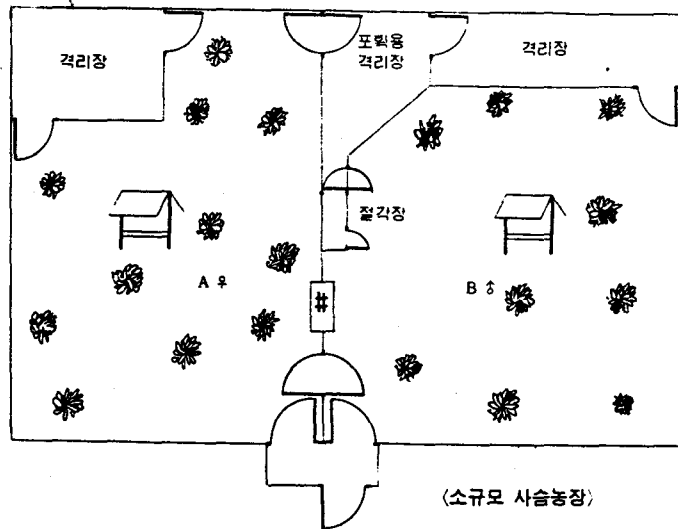
급수시설은 사료통과 떨어지게 설치해 놓는다. 그래야만 사료를 먹은 뒤 운동을 하며

멀리가서 물을 먹는 습관을 길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규모 농장과 소규모 농장의 주사육장을 나타낸 것이다.



(대규모 농장의 주사육장)



(소규모 사육농장)

격리 울타리를 설치하여 격리사육장을 만든다. 격리사육장은 ④ 절각을 하기 위하여 ⑤ 번식, 사육에 관한 실험, 연구의 목적으로 ⑥ 질병으로 약화된 사슴들을 격리 치료하기 위하여 ④ 분만에 대비하여 ⑤ 이동하는 사슴을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절각장은 녹용 채취시 뺨을 자르기 위한 시설물로 꼭 필요하며 포획 보정하는데도 사용된다. 절각장의 위치는 수놈칸에 설치하여야 하며 암놈칸과 접한 곳에 설치하면 사슴의 상태로 보아 쉽게 사슴을 몰아 넣을 수 있다.

절각장은 나무상자와 같은 모형으로 앞문, 뒷문, 옆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연결된 통로도 나무로 만들어야 사슴에게 안전하다.

포획장 (捕獲場) 및 절각장 (切角場)은 나무 울타리로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